

# 중소의 체제개혁노선과 그 한계

政治評論家 梁 好 民

## ( I )

오늘 중·소의 두 공산주의거국에서 지금 바야흐로 추진되고 있는 획기적인 체제개혁의 시도는 사회과학자들이 학문적 촉각을 예민하게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사의 미래전망이라는 측면에서는 생각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비상한 관심속에서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체제개혁이란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개혁으로 대별된다.

1977년 8월 등소평은 두번째 실각으로부터 재부권되어 곧 권력의 사실상의 정상을 차지했지만 그의 앞에 놓인 것은 문화대혁명(10년재난) 동안에 황폐화된 경제와 멀리 뒤떨어진 과학기술, 군통수체제의 난맥상, 행정기구의 파괴, 문예의 극단적 위축이었다. 그는 중공의 활로를 4개현대문화정책노선에서 타개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 먼저 침체되고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고, (2) 단호한 대외개방정책에 의하여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3) 사상을 해방하여 안정과 단결을 실현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등소평이 당의 최고실권자로 등장한 후 오늘까지 약 10년 동안에 중공의 경

제체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농촌에서는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개인(各戶) 청부생산제가 도입되었고, 상품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시장의 기능이 확대되어 갔다. 현재 전국농촌수의 98%가 생산청부제(단독경영)를 택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식량을 증산하는데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sup>1)</sup>

한편 공업부문에서는 국영기업외에도 집단(협동조합) 경제, 개인경제 등 다양한 소유형태가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기업의 자주적 관리권, 임금(평균주의) 이른바 〈악평등〉제의 폐지, 보상금제정 실시, 상품경제의 도입, 시장 메카니즘의 활용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의 원용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78년 현재 전국개인경제 부문종업자가 10만명 이하였던 것이 85년에는 1천7백만명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sup>2)</sup> 최근에는 〈신형의 공유제기업〉으로서 사무원, 노동자가 주주로서 참가하는 〈협력기업〉(소형기업)이 발달하고 있는 한편, 노동자가 국가, 그 밖의 사회단체와 더불어 주주가 되는 〈주식기업〉(大型)이 창설되어 그 수는 전국에서 6~7천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sup>3)</sup>

이러한 경제체제상의 개혁은 어디까지나, 그 논거는 맑스-엥겔스-레닌-스탈린-모택동의 이론을 정정, 또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sup>4)</sup>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수사를 떼어버린다면 개인의 물질적 이익과 기업의 자주경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경제의 요소를 도입한 개혁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소유를 집단소유로, 국가경영은 집단경영으로 가능한 바꾸어 나가고, 국영매점은 개인에게 임대 또는 청부를 주고, 그 밖의 소매점은 개인에게 매각한

- 
- 1) 宋庭明, 〈中國八年의 改革을 回顧하여〉, 「北京周報」, 1986년 12월 25일호 p. 12.
  - 2) 劉光國, 〈中國經濟의 二大變化〉, 「北京周報」, 1986년 12월 9일호 참조.
  - 3) 株式企業에 關해서는 厲以寧, 〈소유제의 개혁에 關하여〉, 「北京周報」, 1986년 12월 30일호, pp. 21~23 참조
  - 4) 이러한 이론화에 關해서는 趙曜, 〈社會主義特徵의 再識〉, 「北京周報」, 1986년 12월 9일호 참조

다는 중공의 개혁방식은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일체의 개인사경제를 말살하고 자본주의 요소를 근절한 북한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북한에서는 전부가 사실상의 국유화이다. 자본주의를 최대한으로 이용한다는 정책이 바로 대외개방정책이다. 4개경제특구와 14개 연해개방도시를 통해 중공은 서방제국의 자본과 기술, 현대적 경영방식, 고급기술자, 경영자를 계속 불러들이고 있다.

전통적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 볼 때 중공의 경제체제개혁은 가히 초수정주의라고 불리울만 하다. 그러나 국가소유제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산당의 <지도>(독재)가 흔들리지 않은 한 이상과 같은 정책으로는 중공경제가 자본주의에 삼켜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개혁파들의 신념이다. 그런데 중공의 전면적이고, 낡은 도그마를 깨는 이 근본적인 개혁방식에서는 맑스주의의 재해석과 <창조적>보완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는 문제다. 중공은 맑스주의의 이름하에서 서서히 변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공산주의자도 자기는 변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변한 일이란 없다.

그러면 경제체제의 개혁과 정치체제의 개혁에는 어떤 상호연관성이 있는가. 중공의 많은 이론가들은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부단히 표명해 왔다. 그리고 정치체제의 개혁의 방향은 <社會主義的民主>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하나의 공리처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개혁의 내용과 민주주의의 정의다. 정치체제의 개혁에 관하여 강령적 지침을 제시한 사람은 바로 등소평이다. 그는 80年 8月 18日 당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연설을 통하여 행정정치제도상의 주요한 폐단으로서 <관료주의, 과도한 권력집중, 가부장제 간부의 지도직중심제 같은 현상들과 갖가지 특권의 현상<sup>5)</sup>>을 들고, 그 역사적 원인을 해명하는 한편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폐단은 행태상의 폐해에 불과하다. 그는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이란... 정치면에서는 자본주의 나라의 민주주의보다 고도의 실질적인

5) 등소평문선(一九七五~一九七九二年), 1983. 北京 p. 287.

민주주의를 창조해 내는 일<sup>6)</sup>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주의적 민주>, 즉 공산당일당독제에 변함이 없다. 일당독제체제하에서 과연 관료주의와 권력집중과 특권이 없어지고 억제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낡고도 새로운 문제이지만, 등소평도 고르바초프도 소위 <당위 지도>(일당독제)를 불변의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중공의 정치체제개혁이란 어디까지나 일당독제체제 안에서의 당의 作風의 개혁 내지는 선거제도 같은 장치상의 개혁을 의미하게 된다.

등소평은 그가 열거하고 분석한 일련의 폐단과 발생원인을 봉건사상-자본주의사상-식민지적 奴隸사상-문화대혁명의 영향 등에서 찾고 있다. 그중 자본주의사상과 제도에 관해서는 이것을 <이기적이요, 사리사욕을 탐하는 사상>, <약육강식, 사람을 해치고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는 제도>, <금전만능주의>, <도덕의 황폐> <정신의 타락><sup>7)</sup> 등으로 단순화한다. 그는 <근년 국제적인 교류의 발전에 따라 외국부르조아지의 부패한 사상작용과 생활방식의 영향을 받아 서양숭배, 대외아침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sup>8)</sup>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 동지가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생산의 발전과 사회주의사업의 발전에 유리한 그 개혁을 자본주의적이라고 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렸다><sup>9)</sup>라고 그는 그런 비판을 일축한다.

요컨대 중공의 개혁파들이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이점은 활용하되 부르조아사상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경제체제의 개혁이다. 한편<부르조아> 영향은 미리 막기 위하여 등소평은 70年 3月 정치사상면에서의 4개의 기본원칙(사회주의의 길,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공산당의 지도,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견지)를 새삼 강조하고 그후 이것을 당규약에서까지 명

6) Ibid., p. 282.

7) Ibid., p. 298. p. 297.

8) Ibid., p. 296

9) Ibid., p. 298

문화했다. 이 <4개 기본원칙을 떠나서 추상적으로 민주를 공론한다면 반드시 극단적 민주화와 무정부주의의 대범람을 조성하여 안정·단결이라는 정치적 국면의 철저한 붕괴와 4개 현대화의 철저한 실패를 조성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sup>10)</sup> 이것이 그의 위기감이다.

정치체제의 개혁이 경제체제의 개혁에 필요불가결하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논의에만 그쳤고 아직까지 당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논쟁은 79년 이후부터 86년 10월 중국대도시에 번져 나간 대학생시위때까지 당내에서 계속적으로 전개되었고, 어떤 주장은 이상 4개 기본원칙안을 무시했고 어떤 것은 교묘한 논법으로 그것을 벗어나고 있다. 당의 저명한 이데올로그인 廖蓋隆은 80년 10월 당학술토론회에서의 비공개보고에서 레닌의 당조직원칙, 프롤레타리아의 聖祖를 건드렸다.<sup>11)</sup> 한편 李洪林은 86년 6월 2일 《現代와 民主》라는 논문에서 <정치체제를 고도의 민주라는 요구를 기초로 하여 개혁하지 않는 한, 경제체제개혁의 요구에 적응시킬 수 없다><sup>12)</sup>는 전제에서 민주주의 필요성을 열렬히 강조했다. 동년 8월 15일 蘇紹智는 「정치체제개혁과 봉건주의 영향반대」<sup>13)</sup>라는 논문을 통하여 중공의 관료주의, 정치-사상-문화상의 전제주의, 상업상의 특권, 권위존중, 연고주의, 주인과 공복과의 관계전도,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당법위반 등 허다한 부조리현상들의 실례를 들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실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민주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데다. 그 원인을 돌리는 한편, 민주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자본주의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봉건전제주의의 영향에 의하여 조성된 중국의 독특한 정치문화에서 찾고 있다. 그의 논점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중공의 사회주의는 <봉건제적>사회주의가 되는 것이다.

10) Ibid., pp. 162~3.

11) 廖蓋隆, <歷史的 經驗化 俄們的 發展 道路>, 「匪情日報」 제24권 臺北, p. 98.

12) 「世界經濟 導報」 86년 6월 2일부 소재, 「中國月報」(BS)에 轉載된 日譯 引用

13) 蘇紹智의 이 논문<政治體制改革 與反對 封建主義影響> 「人民日報」, 1986년 8월 15일

대학생들의 시위·선동에 책임을 지고 지난 1月 대학과 당에서 축출된 方勵之교수는 9月 21日 「人民日報」지상에서 <과학연구의 가치는 그 자체의 독자적 판단의 표준을 가지며, 어떠한 사람 또는 어떤 일부의 당·정치지도자의 비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당면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중시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光明日報」기자와의 인터뷰(日字不明)에서는 <대학이라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학설도 의문을 품지 않고 견지된다는 일이란 없습니다. 어떠한 학설도 진리의 검증을 받지 않고 선협적 지도적 지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sup>14)</sup> 과연 <중국의 사하로프>다운 발언이다.

이 百家爭鳴式 민주주의론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을 때, 당 12期 6中 전회는 86年 9月 28日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지도방침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선진국을 포함한 현대세계제국의 <선진적인 과학기술,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경제·행정면의 관리경험, 그 밖의 유익한 문화를 습득한다><sup>15)</sup>고 말하는 한편,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를 단호히 박차버리며, 자본주의의 모든 추악하고 부패한 것을 단호히 박차버린다.><sup>17)</sup>는 결의를 선언했다.

이 서리발 같은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대학생시위가 그 후에 일어났다. 方勵之교수는 <맑스, 레닌에서 스탈린, 모택동에 이르기까지 정통사회주의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느니 <우리들은 정치체제, 생산수단의 소유제를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서양화해야 한다>느니를 떠들었다 하여 당에서 제명되었다.<sup>18)</sup> 만일 북한에서 어느 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작가 王若望은 중국의 사회주의

14) 「人民日報」, 1986년 9월 21일

15) 「北京周報」 1986년 12월 16일호 p. 19

16) 「北京周報」轉載, 1986년 10월 7일 각호, p. 3

17) Ibid.

18) 「北京周報」, 1987년 2월 10일호, p. 5

는 〈幻想〉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언론인 劉寶雁은 사회주의와 당의 기본원칙을 〈時代に 뒤진 것이요〉, 〈保守的의〉이며, 〈反動的이기까지 하다〉고 공격했다고 하여 당에서 쫓겨났다.<sup>19)</sup> 그러나 당지도부는 문화대혁명때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배려에서 공식적으로는 〈부르조아적 자유화반대 투쟁〉을 당내에 국한시키며, 그것도 정치와 사상영역에서만 진행시키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모든 논의와 활동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해야한다고 하면서 금년들어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반부르조아적 자유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sup>20)</sup> 이렇게 되자 정치체제개혁논의는 일단 자갈이 물린 셈이다. 〈黨의 지도〉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잊어버린 지식인의 지나친 주장과 학생시위가 보수파가 득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금년 6월 들어 사태는 바뀌고 있는 것 같다. 趙紫陽은 6월 13일 당정치국확대회의에서 薄一波, 胡喬木, 鄧力群 등 보수파 3거두를 〈좌경〉으로 규정 비판했고, 鄧小平은 6월 4일 일본 공명당위원장과의 회견에서 현재 중국의 현대화를 저해하고 있는 세력은 〈右〉보다도 〈左〉라고 밝힌 것으로 홍콩의 〈鏡報〉誌는 전하고 있다.<sup>21)</sup>

## ( II )

소련에서도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정권이 출현하면서부터 체제개혁의 변화는 선풍처럼 일어나고 있다. 당시 54세의 젊은 M·S. 고르바초프가 장로급 고위간부들을 모두 물리치고 권력의 정상을 차지하자 세계는 호기심과 더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그는 당서기장직에 취임하자 곧 節酒法을 실시(85. 6. 1)하고 알콜류의 판매규율을 강화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의 권력

19) Ibid.

20) 「人民日報」, 1987년 1월 1일, 1월 6일, 1월 12일자 사설, 1월 12일자 陳俊生 論文 〈中國은 왜 社會主義를 堅持해야 하는가〉 등등.

21) 「中央日報」, 1987년 6월 9일자 4면 참조.

구조와 내각, 지방행정기관에서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해 나갔다. 그가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비능률·낭비·형식주의·침체·권위상실·무관심·관료주의적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브레즈네프체제였다. 고르바초프는 1987년 1월 27~28일 당중앙위원회총회의 <보고>에서 소련사회의 결함과 침체를 구체적으로 파헤쳤다. 그 중 주목을 끄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회발전에서의 모순과 우리들의 과오, 태만을 덮어두어서는 안된다. 객관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그 밖의 분야에 있어서 전환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요구는 실천되지 못했다. …주요한 원인은 …당중앙위원회, 국가지도부가 무엇보다도 주관적 원인에 의하여 변혁의 필요, 사회의 위기적 현상의 증대라는 위험을 적시에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이것들을 극복하며, 사회주의체제가 지니는 능력을 보다 완전하게 이용할 것을 목표로 하는 명확한 노선을 확립할 수가 없었다는 데 있다<sup>22)</sup>

고르바초프는 계속하여 실천운동에 있어서의 <보수적 기풍, 습관화된 도식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 절박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sup>23)</sup>고 지적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인식에 있어서는 <1930~40年代의 이론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비판하고, 따라서 <생생한 논쟁과 창조적 사고가 빠져나가고 황폐한 평가와 견해가 다룰 수 없는 진실로 되어 이에 대한 해석만이 내려진 상황><sup>24)</sup>을 개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사회의 조직형태는 <독특하게 절대화되고>, 이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동일시되고 불변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객관적인 과학적 분석의 여지가 없는 도그마로서 제

22) <再編과 黨의 간부정책에 대하여> (고르바초프 書記長의 報告), 日本共產黨機關誌 <世界政治>, 1987년 4월(상) p. 3

23) Ibid., p. 4

24) Ibid.



시되었다.><sup>25)</sup>고 한다. 오늘의 북한의 실정은 고르바초프가 비판하는 소련의 그것보다 몇 배나 더 경직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이론적 결함은 실제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수 10년에 걸쳐 경영과 관리의 실천에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반대로 약간의 효과적인 경제형태가 근거없이 배척되었다.><sup>26)</sup>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재산은 <흔히 관청의 자기세력권주의와 현장의 영역주의에 의하여 파먹혔고, 누구의 것도 아닌 것, 공짜, 실제의 주인이 없는 것이 되고, 허다한 경우 부당소득을 얻기 위해 이용되게 되었다.><sup>27)</sup>는 것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사회적 부패>가 빚어낸 <정신적 기풍>의 타락이요, 도덕적 가치의 침식이다. 바로 북한의 현실을 읽는 듯하다. 그는 말한다.

이러한 일의 불가피한 결과는 사회의 사업에 대한 관심의 저하, 정신적 빈곤과 회의주의의 출현, 노동에 대한 도덕적 자극의 역할의 저하이다. 청년을 포함하여 사람들 사이에 한 계층에 출현하였는데, 그들에 있어서 삶의 보람이란 물질적인 안일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돈벌이다. 그들의 냉소주의는 점점 전투적인 형태를 취하고 주변의 의식에다 악영향을 미쳤으며 소비만능의 물결을 불러왔다. 사회적 기풍의 저하의 지표가 된 것은 폭음의 증가, 마약중독의 파급, 범죄의 증대다. 사회의 정신적 분위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것은 법률을 깔보는 아주 잘난척한 태도라는 사실, 속임수, 뇌물받기, 아부, 찬미의 장려다. 어떤 일도 대충 보아 넘기는 상황이 만들어져 엄격성, 규율, 책임감이 저하했다.<sup>28)</sup>

등소평과 마찬가지로 고르바초프도 자기나라 현실에 대한 철저한 비판의식에서 개혁에 착수했다. 이 점에서도 비뚤어진 현실을 찬양, 미화하기에 급급

25) Ibid.

26) Ibid., p. 5

27) Ibid.

28) Ibid., p. 6~7

했던 스탈린-모택동 등 종래의 공산주의 통치방식은 청산된 셈이다. 이것은 최근 월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김일성 체제 뿐이다. 고르바초프가 개혁의 방법상의 원칙으로써 제시한 바는 <사회-경제적 발전에서의 부정적 요인들을 가능한 한 급속히 극복하는 것, 필요불가결한 활력과 가속화를 사회에다 불어넣는 것, 과거의 교훈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sup>29)</sup> 등이다. 그의 공개적 소련비판은 역대의 서기장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소련반체제인사들의 말을 듣고있는 감마저 든다. 그가 <사회·경제발전의 가속화>, <과학기술의 발전의 가속화>, <공업발전의 가속화>를 계속 제창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소련사회의 침체 상태에 큰 위기감을 품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에 있어서 가속화란 우선 <경제성장율을 높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경제의 <구조적 재편> <효율적인 관리형태>, <자극을 주는 노동> 등을 포괄시키고 있는 것이<sup>30)</sup> 특징이다. 그는 첨단기술을 도입 또는 개발하여 생산의 양보다는 질의 향상을 주장하고 있다. 소련공산당의 신강령(1986년 3월 채택)이 <제품이 기술적 수준의 제고>, <품질의 전면적 개선>, <품질의 다양화>, <세계에서의 경쟁력 획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sup>31)</sup> 보면, 그의 서방 선진국에 한 열등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은 고르바초프의 자국비판과 개혁구상의 출발점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의 구체적 정책은 어떤 것인가. 그는 소련경제에서 <아킬레스의 발꿈치>(G. 케난)로 되어 있는 농업의 생산력을 어떻게 높이고, 그것을 위하여 농촌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개혁하려 하는 것인가. 그는 제27차 당대회보고에서 종래의 콜호즈(협동조합농장)과 소포즈(국영농장)에다 <광범한 자립성

29) Mik hail Gorbachev, "Political Report of the CPSU Central Committee to the 27th Party Congress, Feb. 25, 1986, Novosti Press Agency Publishing House, Moscow, p. 8.

30) Ibid., p.24

31) 'CPSU Program New Edition Adopted by the 27th CPSU congress' Introduction, part II p.103, Moscow

을 주고 관리와 경영방식을 쇄신함으로써 큰 자극을 주며 최종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sup>32)</sup>고 언명했다. 요컨대 이것은 농민들에게다 강한 물질적 이익에다 자극을 주어 생산의욕을 높이는 것을 의미했다. 등소평이 인민공사를 해체하면서 채택한 가족단위의 청부생산제와 유사한 방법임을 간과할 수 있다.<sup>33)</sup>

오늘 소련에서 농업의 청부생산제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공업에서는 기업 재산제를 도입하고 소위(악평등)을 폐지, 임금의 격차제를 채택하는 동시에 경영자에게는 경영자주권을 대폭 늘리고 손익에 대한 책임을 지워 결손을 내는 기업에는 파산을 선고제 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당)의 관료주의적 간섭과 비능률을 기업에서 제거하는 한편, 물질적 자극으로 勤勞意慾을 높히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물론이다. 그리고 소유제에 있어서도 국가경제(전인민적 소유)외에 집단경제, 개인 경영경제, 합병기업 등 다양한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새로운 것은 1986년 11월 개인노동법을 채택하여 개인이 수리업, 택시, 레스토랑, 번역업 등 29개 업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현재로 소련에서는 10여만명의 <개인노동자>(私營人)가 있다고 한다.<sup>34)</sup> 이러한 경제체제상의 개혁은 지금까지 국영기업이나 협동조합기업이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주 不充分하다는 사실을 고르바초프는 절감한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련의 경제체제의 개혁은 그 발상에 있어서 중공의 그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중공은 소련의 개혁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해 왔다. 중공의 경우는 레닌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참고로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소련에서는 레닌의 무오류의 절대권위에 의거하여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현대공산주의에 있어서 당조직, 정치체제, 경제체제의 원형은 레닌에 까지 소급되어야 하지만 소련은 그것들을 개혁함에 있어서 레닌의 권위를

32) Gorbacher Report p. 36

33) 「北京周報」, 1986년 12월 16일호, 국제평론, pp. 16~13 여기서는 농촌개혁을 암암리에 중공식으로 보고 있다.

34) Ibid.

빌리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자기모순이다.

소련에는 중공식 경제특구나 대외개방도시는 아직 없다. 그렇지만 미·불·캐나다·스웨덴 등과의 합병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나라들이 창설한 IMF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 소련이 이와 같이 경제체제에 있어 자본주의적 요소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경제의 <최고관리>인 대공장, 은행, 철도 등이 모두 국가소유, 국영으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소련의 자본주의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속단이다.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소련에서는 <再編=再建>(베레스트로이카), <공개성>(글라스노스티), <가속화>(우스카레니에), <품질>(까체스토보) 등의 구호가 팽배하고 있는 속에서 경제개혁이 단행되어 왔다. 그리고 86년초부터는 정치개혁을 뜻하는 <민주화>라는 말이 고르바초프 자신에 의하여 제창되고 강조되어 왔다. 이 때의 <민주화>란 물론 복수정당제,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서구적 개념과는 다르다. 중공 이상으로 소련에서는 <당의 지도>, 즉 공산당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등소평 시대 이후의 중공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혁> <개방> <사상해방> 등의 슬로건과 비교할 때 고르바초프의 <再編>, <공개성>의 구호들은 흥미를 끄는 용어가 아닐 수 없다. 중공에서의 <개혁은 혁명이다>라는 말을 뒤따르듯이 소련에서는 <재편은 혁명이다>라는 말이 번져나가고 있다.<sup>35)</sup>

그러면 <再編>이란 무엇인가. 87년 1월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고르바초프는 말하기를 <再編이란, 停滯의 프로세스를 단호히 극복하고 브레이크(제동)의 메케니즘을 打破하여 소비에트사회의 사회·경제발전의 가속을 위한 확실, 유효한 메케니즘을 만들어내는 일><sup>36)</sup> 이라고 抽象的이지만 명확하게 정의하고

35) <하바롭스크> 邊方黨織活動家會議에서의 書記長과의 연설, 蘇聯大使館廣報部發行「今日の蘇聯邦」, 1986년, 제18호, 부록, p. 5.

36) <再編과 당의 간부정책에 관한 서기장보고요지>, 「今日の蘇聯邦」1987년 5호, 부록, p. 5.

있다. 왜 이러한 再編이 필요한가. 1월 중앙위의 결정(再編과 당이 간부정책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편의주의자와 출세주의자, 형세관망주의자, 貪慾과 蓄財, 暴飲, 부도덕하에 당원과 소비에트지도자의 타이틀을 더럽히는 자들은 단호히 배제할 필요가 있다. 연고주의, 정실, 동향의 정리와 개인적 충성에 따른 당일꾼들의 발탁과 단호히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규약과 소비에트법률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여 사기꾼과 횡령범, 수뢰자를 감싸려하는 자의 책임을 묻고, 우리들의 원칙을 고의로 무시하는 자들을 공개하고 사회적 탄핵에 맡길 필요가 있다. 청렴하고 성실한 지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각 당조직의 최고의 의무다.<sup>37)</sup>

위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오늘 소련사회는 부패의 타성 때문에 붕괴직전에까지와 있다는 감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과거 70여년 동안 수백만, 수천만의 인격을 혁명이란 이름에서 희생시켜야 했던가. 위의 말 중 <폭음>만을 떼어버린다면 마치 중공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양국 사회의 병폐현상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중·소 양국의 공산당이 규탄하고 있는 이른바 <부정적> 현상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은 바로 공산당의 독재체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독재체제를 계속 예찬하고 있는 것은 오직 북한뿐이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는 방법은 <민주화>에서 찾고, 앞장서서 민주화를 설득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중공에서는 등소평시대에 들어서면서 8년 동안이나 <민주>를 부르짖으면서 정치체제의 개혁을 구상해오던 중, 86년 겨울 이후 대학생들의 급진적 요구(서구형 민주주의)가 시위로 번져 나아가(반부르조아자유투쟁)으로 그런 민주화요구를 진압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고르바초프는 등소평보다 8년 뒤에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습에 젖은 당간부들과 독재권력에 오랫동안 주눅

37) Ibid., p. 17

이 들어온 대중들이 오히려 소극성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서지 않고 있는 사실에 고르바초프는 고민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르바초프가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수후보선거제와 비밀투표제는 스탈린주의형 소련의 정치체제를 위로부터 개혁하려는 획기적 변혁으로 평가해서 마땅할 것이다. 중공에서도 부르조아적 자유화 반대 투쟁에서나마 <선거의 민주화>의 일환으로 몇몇 지방선거에서 小幅의 복수후보제를, 중공에서는 비밀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혁의 전제가 되는 이데올로기에서의 解氷의 봄은 먼저 문학예술의 세계를 찾아온다. 중공에서는 등소평에 의하여 문화대혁명시대의 통제의 제방이 완전히 무너졌다. 87년 6월 소련작가동맹 제8차 대회에서의 작가들의 발언기록을 분석해보면 종래의 문예계에 대한 당관료들의 규제와 전제가 얼마나 酷하고 규범의 적용이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일례로 대회에서 F. 푸즈네쵸프는 말하기를 <관료주의의 본질은 진정한 권위를 허위의 권위로 바꾸는 점에 있다… 재능이 결여되고 기회주의적이며 예술적으로 의아스러운 작품들이 ‘청신호의 교룡로’를 획득하고 있으며,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잡지와 출판의 확장에서 제한없이 자유의 席을 차지하고 있었다… 문학계의 권위와 지도적 지위는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sup>38)</sup>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문단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자유의 중요성을 개진했다.

지금 소련의 문예계는 해방의 분위기에 젖어 있다. 오랫동안 터부로 되어온 튀바코프, 두덴쵸프, 베크는 해금되었다. 나브코프, 그미로프, 보다세비취 등의 작품들이 햇빛을 보게 되었으며, 바스테르나크의 6卷 전집과 8卷 서간집, 그리고 <의사지마고>도 곧 출판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소련에서는 문학상의 검열은 거의 처음으로 행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인 보즈넨스키는 확인하는데 서슴치 않았다.<sup>39)</sup>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문예자유화정책은 지식인들을 활성화

38) <蘇聯作家同盟第八回大會에서의 發言> 1) 「世界政治」, 1987년 1월(上), pp. 56~57

39) 「世界週報」(모스크바 特派員과의 인터뷰), 1987년 3월 31일, 호 pp. 52~55.

하고 그들의 지시를 얻어 소련지성의 힘을 개혁에다 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공개성의 원칙과 〈민주화〉는 록크뮤직, 연구 등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일당독재체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래에서나마 강제가 완화되고 표현의 상대적 자유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르바초프는 〈재편〉, 〈가속〉, 〈민주화〉의 바람을 대학에까지 몰아가고 있다. 86년 10월 1일 그는 전소련사회과학강좌 주임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청년들에게 형성,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의 말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며, 사회과학의 교조주의적인 교수법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커리큘럼을 再編하고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고, 교과서를 쇄신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변증법적 해명 방법, …요컨대 … 모노를그가 아니라 다이나놀그야말로 청소년의 교육과 훈육에서 참으로 창조적인 과정의 필요한 요소입니다〉<sup>40)</sup>

이러한 지적 자유의 허용은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소련의 두브체크〉를 상상케 하는 고르바초프의 이상 일련의 경제-정치-문화체제상의 개혁은 자본주의, 자유민권, 복수정당제, 사회의 다원주의 등 서구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것은 중공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일당독재를 핵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력있게 그리고 구미를 따라 잡을 정도로 부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로서 비공산주의세계가 그의 개혁이 사회주의체제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不充分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해 말하기를 〈이것(사회주의에 의거하는 개혁)이 서방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주의로 부터의 일탈을 뜻하는 것 같은 것이나, 우리가 자본주의에 공손한 말

40) 〈全蘇 社會科學講座主任會議에서의 고르바초프서기장의 연설〉「금일의 소연방」, 1986년 22호 부록 p. 23.

로 부탁하고 자본주의의 방법을 차용할 것을 지망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어드바이스”가 오고 있다.<sup>41)</sup> 이 풍자적인 말은 그의 단호한 반서구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서방측의 그를 찬양하는 것도 난처할 일이다. 서방측이 부르조아들이 소련을 찬양할 때는 사회주의 소련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심리는 레닌이래로 집요하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나라들의 고르바초프에 대한 찬양은 크레믈린내의 개혁을 반대하는 보수파들의 반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것은 중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공의 경우 완고파는 陳雲, 彭眞, 薄一波, 余秋里, 胡喬木, 鄧力群, 王震 등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소련의 경우는 아직 명백치 않다. 다만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중공의 보수파들은 백전노장의 원로혁명가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소련의 경우는 정치국원, KGB, 군장성내부의 상상할 있는 보수파들은 모두가 혁명후에 출세한 관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한 소련은 중공에 비해 세대교체가 용이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실패하거나, 또는 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의 과도한 요구가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갈 때는 보수파가 대두할 가능성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개혁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엮는 식으로는 누구도 소련을 발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상 중·소의 개혁노선은 스탈린-브레즈네프시대와 모택동시대에 대한 철저한 비판위에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신격화하여 당내의 비판은 일체 용인되지 않고 끝없는 예찬만이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북한의 실재가 지난 40년 그러했듯이... 지금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는 계속 상승되고 있고, 스탈린과 모택동을 모방한 북한의 개혁노선, 경제체제, 당조직은 절대화되어 개혁을 용납치 않는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사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큰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41) 전기 <하바롭스크연설>, 「금일의 소연방」, 1986년 제16호 부록, pp. 4~5